

월요논단



김영호 미술평론가·중앙대교수

폭염이 가시고 청명한 바람이 새삼스런 가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가 전국의 도시마다 봉황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광주, 서울, 부산, 공주, 대구, 대전, 창원, 목포 등 8개 도시가 그 주인공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금년 상반기에 열렸던 강원지역의 비엔날레와 지난해에 열렸던 제주, 경기, 광주(디자인), 서울(건축), 제주 등 6개 지역의 비엔날레를 더하면 우리나라는 14개의 대표 비엔날레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경경이다. 현장 답사는 물론이고 비엔날레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

비엔날레 확산, 과잉인가 필연인가

자체가 숨이 가쁠 정도다. 그 이름들을 한번 열거해 보자. '제12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9월 6일~11월 18일)', '제9회 부산비엔날레(9월 8일~11월 11일)', '제8회 금강자연비엔날레(8월 28일~11월 30일)', '제7회 대구사진비엔날레(9월 7일~10월 16일)', '제4회 대전비엔날레(7월 17일~10월 24일)', '제4회 창원조각비엔날레(9월 4일~10월 14일)', '제1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9월 1일~10월 31일)', '금년 상반기에 열렸던 비엔날레는 '제1회 강원국제비엔날레'와 지난해에 열렸던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제1회 제주비엔날레'이다.

주비엔날레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제가 만든 문화적 결실이자 예술과 정치 사이의 생산적 역학관계를 실험하는 쟁의장으로서 성장해 온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이후 신생비엔날레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사례가 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청주, 경기 지역의 비엔날레가 탄생된 배경은 그러하다. 오늘날 비엔날레는 예술의 순수한 미적경험의 장을 확장시키고 미술사의 일가를 정리하는 기능을 넘어서 있다. 세계화와 지정학적 경계, 지역의 정체성과 보편성, 인종과 종교의 분리와 대립, 유목주의와 디아스포라 주공예비엔날레,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7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제1회 제주비엔날레'이다.

비엔날레를 바라보는 눈은 다양하다. 우리나라 비엔날레의 탄생에는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의 출범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광

역을 대표하는 장르나 매체를 내세우는 비엔날레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각, 공예, 도자, 디자인, 건축, 수목, 사진, 미디어, 과학기술 등을 내세워 비엔날레를 지역의 특산물로 성장시키려 한다.

우리나라 비엔날레의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것이 주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와 파급력이 봉화대처럼 명확하고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비엔날레의 역사에 발을 들여놓았다. '제2회 제주비엔날레'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작지만 강한 조직의 비엔날레, 함태평양 지역의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비엔날레, 주민들 모두가 함께 가꾸는 비엔날레라는 기본을 다지는 일이다. 비엔날레의 확산은 시대적 필연임을 인식하고 제주비엔날레의 미래에 대처할 조직과 비전과 합의를 세우는 일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설

정부 주도 택시감차, 쥐꼬리 지원 먹히나

정부 주도로 택시감차를 시행하고 있다. 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총 감차 목표는 전국 2만5858대로, 지금까지 1922대가 감차됐다. 목표치의 7.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택시감차 실적이 부진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감차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관할 지자체에 사업면허를 반납한 뒤 실거래가를 보상받는다. 제주지역은 2015~2035년까지 택시 1000대(개인 736대·법인 264대)를 감축한다는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했다. 택시감차보상금은 2012년부터 꾸준히 올라 개인택시는 5850만원에서 1억원, 법인택시는 19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감절 가까이 뛰었다. 감차보상금은 국비 390만원(30%), 도비 910만원(70%) 등 보조금이 1300만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그 부담이 만만찮다.

국비 인센티브로 충당하고 있다. 택시업계 출연금을 국비 인센티브로 부담한 지난해에는 24대를 감차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21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국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2015년과 2016년에는 단 1대도 못했다. 감차 실적이 낮아 국비 인센티브를 따오지 못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8700만원은 택시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국비 인센티브조차 없으면 사실상 감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실제로 제주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50대 가량 감차해야 하는데 4년동안의 실적이 고작 50대 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택시감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처럼 택시감차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영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감차 재원으로 충당한다는게 어디 쉽겠는가. 특히 감차보상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정작 보조금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국비 지원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물론 택시업계도 공급과잉을 인식한다면 자구노력 차원에서 보다 적극 감차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용금을 감차실적평가에 따라 배부되는

열린마당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요?



이솔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가 기분 좋은 요즘이다. 어제 저녁에는 공기가 좋아 남편과 외식을 했는데, 옆자리에서 술잔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대화가 어질지 않는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에 한 쪽은 영업사원, 한 쪽은 거래처 사장의 위치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열핏 본 바로는 서로의 지위에 신경쓰지 않고 신나게 옛날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오랜 친구란 참 보기가 좋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때, 영업사원인 친구 쪽이 별떡 일어나더니 서둘러 계산서를 들고 가게 문가로 향했다. 당연히 사장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그를 막으려 했고 말이다. 그 순간 영업사원친구

가 웃으며 한 말이 이것이었다. "어허!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사장친구는 어딘지 난처해하면서도 깔깔 웃으며 그 친구가 계산하도록 놔두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씩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말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는 속담이지만 정림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관계에서 사는 이만큼 독이 되는 말도 없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규칙이 무시될 여지가 있고, 생각만큼의 '오는 정'이 없을 때에 는 더 큰 '가는 정'이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거래'로는 어떤 관계에서도 올바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는 정이 없더라도 법과 규칙대로 일이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사회의 발전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규칙에 정이 끼여들지 않는 사회, 정림이 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사회, 공정함과 신뢰가 바탕이 된 건강한 사회를 그리며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 조만간 확정”

원 지사 도의회서 입장 표명

○...원회록 제주지사가 7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민복지타운의 활용방안에 대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원 지사는 김창식 교육위원의 시민복지타운 선진국형 체육공원 조성 제안에 대해 “조만간 행복주택 타당성 용역 결과도 나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하겠다”고 언급.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대두되자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 올해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

송당리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지난 6일 공사현장서 '시민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송당리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며 결국 중단.

주민들은 공사가 '수년간 노출돼 온 주민들의 사고위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고, 시민단체 측은 '공사가 최선의 해결책인지 여전히 의문'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대립.

이 같은 승강기가 이어지자 결국 주체 측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행사진행이 무리라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 제안

○...서울 종로에 있는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제주에도 유치해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제기돼 눈길.

안창남 의원은 지난 6일 교육행정질문에서 “타 지역에 비해 과학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한다”며 제주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설립 필요성을 언급.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5곳의 어린이과학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국립 어린이과학관은 국립과학관과 연계해야해 유치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

그래픽 뉴스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란 무엇인가

Infographic about MERS-CoV with statistics and symptoms. Includes a camel illustration and a red box with '2018년 9월 8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Small infographic with a red box containing the text: '2018년 9월 8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부고 김석진(前 우리기원원장) 아버지 광산김공 경찬(향년 105세)께서 서기 2018년 9월 9일 10시 4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고 조원석(제주일고 교사) 어머니 제주양씨 두울(향년 95세)께서 서기 2018년 9월 9일 07시 23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부고 한탁용 아버지 청주한공 재원(2·3대 도의원, 前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향년 95세)께서 서기 2018년 9월 9일 낮 12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응해(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인영(향년 4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리점 모집 신기한 발명 소자본 선착순 유리한 기회 창업, 겸업, 부업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창수(안드레아·향년 8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판매 덕수리 1433, 1656평 덕수리 1434, 1923평 당 70만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7899